



오싹한 추리소설 무더위가 싸악~

출판사 '검은숲'이 펴내기 시작한 '엘러리 퀸 컬렉션'의 재미 중 하나는 책 후반부에 등장하는 '독자에의 도전'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읽은 부분에서 내가 수많은 정보를 제시해 놓았으니 "이제 범인을 맞춰보라"는 제안이다. 물론 책을 읽으면서 범인을 머리 속에 그리기는 하지만 막상 도전을 받고 나면, 심호흡을 하게 된다.

최근 들어 다양한 추리소설 시리즈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최근작은 민음사가 펴내는 '필프' 시리즈다. 가벼운 페이지백 판형과 7800~8800원

비로 내세운 '타우누스 시리즈' 중 한권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은 예상을 깨고 40만 권 이상 팔리면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이후 올 2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의 뒷 이야기를 담은 '바람을 뿌리는 자'가 출간됐고, 최근 시리즈 첫번째 권인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독자들을 만났다. 올해 말 시리즈 세번째 권 '깊은 상처'가 출간될 예정이다.



일본 각지에 남아 있는 설화를 살인 사건과 연결시킨 작품이며 '집승의 길'은 평범한 여성의 삶을 통해 악의 근원을 밝힌 소설이다.

주인공의 이름이자 사촌지간인 저자 맨프레드 리와 프레데리크 다네이의 필명을 시리즈 제목으로 삼은 '엘러리 퀸 컬렉션'은 이른바 '국명 시리즈'로 구성돼 있다. '로마 로마 미스터리', '프랑스 파우더 미스터리' 등이 팬들을 만났고 7월 들어 '삼 쌍둥이 미스터리'와 '중국 오렌지 미스터리' 두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또 '미국 추리 소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대실 해밋의 작품 5권도 안간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물타의 매', '그림자 없는 남자' 등은 군더더기 없는 문체와 이야기 전개로 독자들이 관심을 끈다

요즘 추리소설 매니아들에게 가장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다카노 가즈아키의 '제노사이드'다. '인류보다 진화한 새로운 생물'의 출현에서 비롯된 인류 종말의 위협과 이를 둘러싼 음모를 추리 스타일러와 SF 기법을 통해 풀어간 작품으로 그의 대표작인 '13계단'의 아성을 잇고 있다.

그밖에 영화로도 만들어져 화제를 모았던 '화차'의 미야베 미유키, '용의자 X의 헌신' 등을 쓴 히가시노 게이고 등 일본 추리소설 작가들의 책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80년 5월 그날...살아남은 이들의 32년

'님을 위한...' 20~21일 빛고을문화관

광주문화재단 두번째 제작 브랜드 공연

광주문화재단이 두번째로 제작한 브랜드 공연작품 '님을 위한 행진곡-자스민광주 2012'가 오는 20일 오후 8시와 21일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첫선을 보인다.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의 폐막 작품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춤을 전면에 내세운 '다큐멘터리 댄스 시어터(Documentary Dance Theater)'다.

지난해 제작했던 '자스민 광주'는 과거에 지나치게 매몰된 데다 너무 무겁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단측은 17일 "가슴 아픈 후일담이나 애절한 뒷길을 뛰어넘어 신선한 음악과 파격적인 춤으로 80년 5월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의 32년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5·18을 경험했던 한 남자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그날로 되돌아가면서 시작된다. 그날의 현장과 살아남은 이들의 삶, 그들의 시련과 저항의 세월을 몸짓과 무대장치를 통해 경험하게 보여준다.



'님을 위한 행진곡-자스민광주 2012'

광주문화재단 예술감독 윤상진씨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20대 젊은 안무가 류장현씨가 안무를 짰다. 류씨는 동아무용공쿠르 대상, 2007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 최우수안무가 상 등을 수상했다.

2012여수엑스포 개·폐막식 음악감독을 맡은 김태근씨가 음악감독으로, 김남건씨가 연출로 참여했다. 15명의 남성무용수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군무 등이 관람포인트다. 문의 062-670-7916. /김미은기자 mekim@

연쇄살인 '디킨스의 최후'

완전범죄 '팡 토마스'

'엘러리 퀸 컬렉션'

'백설공주...' 후속 등 붐몰

에 이르는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운 '필프'는 스티븐과 서스펜스, 금요소설 등 30~40대 남성 독자들을 본격 공략하는 시리즈물이다.

'단체클럽'으로 팩션 붐을 일으킨 매튜 필의 작품으로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죽음과 그가 남긴 유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연쇄살인 사건을 그린 '디킨스의 최후' 등 4권이 한꺼번에 출고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던 외국 소설은 독일 출신 여류 소설가 벨리 노이하우스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었다. 냉철한 수사관장 보렌슈타인과 여형사 피아를 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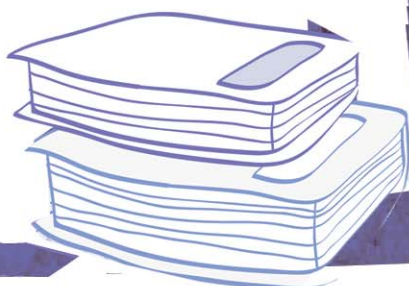
파에르 수베스트르, 마르셀 알랄 두 사람이 1909~1011년 사이에 무려 32권을 써낸 '팡 토마스' 시리즈는 완전 범죄를 일삼는 팡 토마스와 그를 쫓는 형사 쥐브, 신문기자 팡도르가 펼쳐나가는 이야기다. 앞으로 '죽은 자가 살인한다', '심야의 샷마차' 등이 출간되며 팡 샬·장 르노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중이다.

프랑스 작가 파에르 르메트르 '알렉스'는 형사반장 '카미유 베르호벤 3부작'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으로, 국내 첫 출간작이다. 한 젊은 여성이 괴한에게 납치된 후 알몸으로 허공의 새장에 갇히는 사건을 시작으로, 카미유 베르호벤의 수사와 끔찍한 연쇄살인이 번갈아 보여진다.

일본 미스터리 거장 마쓰모토 세이초의 작품도 사후 20년 만에 한국팬들을 만난다. 북스피어와 모비딕 두 출판사는 같은 판형과 표지로 '세이초 월드' 시리즈 27권을 소개하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사파와 미스터리'를 만들어낸 세이초의 작품 1000편에 가운데 36편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436편이 TV 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여전히 사랑받는 작가로 꼽힌다.

세이초 월드의 시작을 알린 'D의 복합'은



손톱보다 작은 유리 정교함이 '반짝반짝'

차화선 '모자이크전' 빛고을 시민문화관

손톱보다 작은 유리를 골라 붙인 모자이크의 정교함이 놀랍다. 일일이 각도를 다르게 배열해 표현한 치밀함도 엿보인다. 평면작품에서만 사용되던 '유리조각 모자이크' 기법을 설치 미술에까지 응용한 점도 신선하다.

차화선씨가 18일부터 26일까지 빛고을 시민문화관 전시실에서 여는 '감정들로 이뤄진 모자이크'전은 모자이크의 고급스러움과 정교함으로 가득한 전시다.

문화재단이 기획한 초대작인 전시에서는 세계 유일 모자이크 전문학교(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전문학교) 출신인 차씨가 이탈리아에서 탄생된 반투명 유리 '스탈티'와 기와, 대리석, 황동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제작한 모자이크 작품 27점을 선보인다.

작은 쇠망치로 유리나 돌을 일일이 깎아 끼워 맞춰 나무판에 붙여 가면서 만들어진 작품에서는 하루 10~11시간씩 앉아 공들인 작가의 열정과 세심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시멘트를 적서 굳힌 옷과 유리를 붙여 만든 모자로 구성



'Nostalgia 향수'

된 '껍데기'나 수천개의 유리를 붙여 만든 '자화상' 등은 실제 모습 뒤에 감춰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18일 오후 5시부터 작가의 작업 현장이나 도구가 전시되며 시연회도 열린다. 문의 062-670-791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퇴직 교원 위무량씨 시집 출간

전직 교사가 국내 주요 산과 식물 소재로 한 시집을 냈다.

중학교 교장을 정년퇴임한 위무량씨는 최근 국내 유명산과 공원, 뒷산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을 시로 표현한 '늘푸른 세상'을 출간했다.

저자가 '시로 읊은 식물도감'이라는 부제를 붙일 정도로 산과 들관에 핀 풀꽃, 나무 등의 아름다운 자재를 7부에 걸쳐 과별로 나눠 시로 표현했다.

식물에 대한 관심과 환경의 소중함



을 알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식물 정보를 담은 생생한 사진은 덧붙였고 설명을 더했다. 교사 출신의 품품함이 엿보일 정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ijibung.com

공정직영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저시공임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는 분!
출장전적 무료!!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도 사용하지 않는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정독대, 발레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열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달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뚫어서 물배짐이 원활하다.

* 상기 특허 도용 및 미허가 도용시 개발비용외에 법적 고소까지 할수 있습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측사의 인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딜정도에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미터로 새로 뚫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배짐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벗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호씨가 있을 뿐 아니라 반영구적이라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에는 다른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순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첫째, 산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많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배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승훈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투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